



FHFA, 기업은 다가구 관용을 확장합니다

FHFA (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)는 Enterprises (Fannie Mae 및 Freddie Mac)가 자격을 갖춘 다가구 부동산 소유자에게 제공 한 COVID-19 관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처음에는 2020년 말에 만료 될 예정입니다.

FHFA 이사 인 Mark Calabria는 "우리 지역 사회에 COVID-19가 계속 존재하고 임차인에 대한 불균형적인 영향으로 인해 FHFA는 연말과 2021년 1분기까지 관용 다가구 제공 및 임차인 보호를 확대 할 것입니다."라고 말했습니다. 릴리스.

COVID 관련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 지원 다가구 모기지가지있는 부동산 소유자는 신규 또는 자격이있는 경우 수정 된 인내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지만, 부동산 소유자의 인내 및 상환 기간 동안 사용할 수있는 세입자 보호에 대해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. , 그리고 부동산이 관용 상태에있는 동안 임대료 미납으로 만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습니다.

세입자 보호에는 세입자에게 퇴거를 최소 30일 전에 통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. 임대료 미납에 대해 세입자에게 연체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임차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대료를 상환 할 수있는 유연성을 허용하며, 반드시 일시불로 지불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임차인은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 COVID-19 관련 어려움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.

Freddie Mac의 다가구 책임자 인 Debby Jenkins는 "우리는 여전히 대유행의 한 가운데에 있으며 다가구 시장에 대한 지원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 차용인이 신규 또는 추가 인내 계약을 요청할 수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"라고 말했습니다. "우리의 인내 프로그램은 Freddie Mac Multifamily가 COVID-19 동안 다가구 운영자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한 가지 방법 일 뿐이며 안정성, 유동성 및 경제성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."

